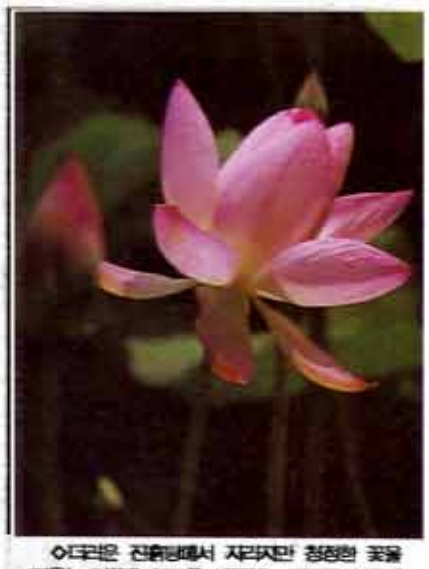
제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꽃

"쫙트고 잎돋아 꽃피고 열매 열림은 '생주이멸' 우주진리 드러내는 것"

선암사 선방 앞의 '백매화'
3백년 이상된 고목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흩뿌릴 때는 마치 꽃비 내리는 극락정토의 듯 장관이다. (사진 · 석선암스님)



이도국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사진 · 김근중)

수중에 물감을 풀어 수공으로 만든 지화.

연꽃을 들고있는 부처님 주위로 꽃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불국사 극락전 후불탱화.

마음에 꽃 피니 밝은 세계 열려

이심전심 염화미소 '禪의 백미'

꽃공양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담겨**

만다라화 **부처님 '법화경' 설법때 내린 꽃비**

'꽃이 비처럼 내리는 화엄세계.'

〈아미타경〉에 이런 표사가 나온다. 경전에는 꽃이름과 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또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고 난 후에는 언제나 천상에서 꽃비가 내려 장엄하고 있다.

꽃은 화려한 자태와 오묘한 색깔, 매혹적인 향기로 지고의 아름다움을 상징해 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진리를 꽃으로 비유하고 꽃이야기가 많은 것이다. 꽃비가 내린다는 것은 또한 그곳이 우리가 지향하는 극락정토라는 상징적 비유이다.

꽃소식은 봄이 옴을 상징한다. 봄이기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라고 하지 않는가. 죽음과 추위, 어둠에서 새롭고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꽃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향기와 아름다운 마음을 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어 피어있기 어렵다는 뜻이다. 즉 아무리 당당한 권세도, 부도, 명예도 영원할 수는 없고 결국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씨가 싹을 틔어 잎이 돋고 꽃을 피워 열매가 맺는 과정은 그대로가 부처님이 설하신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연기이다. 하나의 꽃에서 우주의 진리, 생명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에게 한송이의 꽃을 들어보이자 모두들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염화미소(拈花微笑)'. '염화미소'는 무언으로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으로 진법하는 것을 지칭한다. 부처님은 '여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했다. 염화미소는 중국 송대(宋代)이후 선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말로써 실질적인 선종의 시원이 됐다.

■연꽃(蓮花)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청정하게 꽃을 피운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은 번뇌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비유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부처님이 깨우치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 마치 호수의 연꽃으로 보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진흙속에 있고, 헤어나려 하고, 간신히 머리만 내밀고, 꽃을 피우려 애쓰는 등 이런 모습은 인생의 고해에 휩싸여 있는 중생의 모습이었다.

탐진치가 난무하는 세속에 살면서 본성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경계에 부딪쳐 흔들리기 보다는 극복의지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은 고고함을 가지고, 살고는 그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꽃꽂이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가지 공양물중 으뜸이 꽃공양이다. 불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담아 공양함으로써 진실된 소망을 발원해왔다.

불교전성기에 생화를 공양하던 것이 꽃꽂이의 근원이 됐다. 육법공양의 꽃꽂이는 삼단공화로 부처님께 올리는만큼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으로 장엄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요란스럽게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불교꽃꽂이는 기교·기능의 예술성이 아닌 믿음이 우러나야 한다. 즉 부처님께 올리는 꽃꽂이는 꽃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꽃(진리)을 아름답게 심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꽃꽂이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자연주의에 불교의 불전공화형식(佛前供花形式)을 받아들이면서 상·중·하단 공화가 형성됐고 삼각구도를 기본으로 좌우대칭과 인위적인 표현이 가미된 기법으로 발전됐다.

■꽃장식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시사철 꽃이 흔하지 않아 절에서 큰 재를 지내려면 주로 스님들이 여러날 전부터 종이에 화사하게 물감을 풀어 수공으로 만든 지화(紙花)로써 불단을 장엄했다. 지화는 불교적인 영향으로 탄생해 널리 퍼졌는데 영산재

시연시 지금도 갖가지 꽃모양이 만들어져 장엄되고 있다. 큰 잔치시 종이연꽃 세 송이를 한가지에 달리도록 만들어 음식위에 꽂는 수파련(水波蓮)도 세간에 유행했다. 초창기에는 부처님전에 치장했던 조화를 금, 은, 브석으로도 만들었다.

특히 꽃장식은 연꽃이 많이 쓰였다. 임종시에는 커다란 연꽃으로 꽃상여를 만들어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했다.

■법화경 · 화엄경 · 아미타경

꽃에 비유된 바른 가르침의 경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연꽃처럼 현상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여 인격을 완성하며 세상을 광화로운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설한 경전이다.

말 그대로 '꽃으로 꾸몄다'는 뜻의 〈화엄경(華嚴經)〉은 아름다운 마음의 행동을 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맨밑에는 풍륜이 있고 위에 향수해가 있는데, 향수해의 커다란 연꽃속에 있는 세계를 부처와 정토세계를 보여주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했다.

〈아미타경〉은 극락정토를 연꽃으로 상징했다. 극락정토는 연꽃으로 장엄된 아미타여래의 세계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법구경〉 등 불교의 많은 경전은 꽃을 비유대상으로 삼고 있다.

■꽃살문

대웅전 극락전 등 절문은 예쁜 꽃으로 곱게 치장되어 들어서는 이에게 마곳이 극락정토임을 느끼게 해준다.

절문 중 유명한 정수사 법당 중앙 2칸 창호 어간은 푸른꽃병으로 부터 여러색깔의 꽃이 피어나간 모양을 조각한 꽃살창호로 돼 있다. 봄나무판을 빠아 밀일이 꽃두니를 새겨 마치 화병에 풍성하고 화려하게 꽃꽂이한 모습이다.

■만다라화(曼陀羅花)

만다라화는 부처님이 나타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성한 꽃이다. 빛깔이 미묘하여 보는 이의 마음에 열반락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만다라화는 인도의 뜨거운 여름이 끝나면 제일먼저 피는 꽃중의 하나로 꽃잎이 없으므로 그 꽃이 통째로 1m나 되는 나무위에서 바위처럼 솟아진다는 것이다. 경전속에는 수없이 이 꽃이 솟아지고 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가부좌상태에서 무량의처삼매에 도달했는데 만다라화가 세존과 대중들위로 뿌려져 부처세계가 6종으로 진동하고 감탄의 소리인 "우다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고 한다.

■우담발화(優曇鉢華)

우담발화는 3천년에 한번씩 핀다는 상상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한다. 1m 높이에, 타원형형태로 뽕나무과에 속한 우담발화 나무가 있다. 잎이 무성하고 3센티의 포도알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이 것때문에 우담발화나무 아래는 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수행처였다고 한다.

우담발화가 3천년만에 한번 꽃이 핀다는 것은 부처님 설법을 듣는다는 것은 여간한 인연이 아니면 듣을 기회가 없다는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우담발화가 무화과처럼 호리병모양의 과실안에 매년 많은 꽃이 피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어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사라수꽃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라쌍수가 때아니게 꽃이 피어 만개했다. 사라수꽃은 후두둑 떨어져 부처님을 덮었다고 표현돼 있다.

사라수는 인도전역에 분포하는 나무로 줄기가 곧바르며 잘자라 키가 보통 36m나 된다. 겉껍은 황백색이며 광의 귀모양 같은 은기나는 잎에 몇개의 우유빛을 내는 작은 꽃이 달린다. 줄기에서는 두나라고 부르는 향내음을 내는 수지가 추출된다. 세번째 부처인 비바사부처님도 사라수꽃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한다.

■국화 · 매화꽃

매화꽃은 눈속에서도 피어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다. 매화는 고결한 사람의 절개나 덕을 상징하고 있다. 예전에는 선원에서 수행하는 큰 스님들이 매화나무지팡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때문에 고찰에는 땅에 꽃아 뿌리가 내린 큰 나무가 있다는 수백년 묵은 매화나무가 많다. '9월9일에 국화가 새로 핀 것은 시절 인연이 눈앞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고려 혜심스님)'는 시처럼 국화는 백죽공(白菊花)의 사상을 표상해주는 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국화가 대중식을 장엄하는 꽃이 된걸까.

김원우 기자

육법공양중 꽃공양 장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공양은 공양중의 으뜸으로 꼽힌다.

정수사 법당의 꽃살문(부분).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깔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 격:
6m×90cm=₩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한울기획
◆전화:(02)474-2040~1
◆FAX:(02)477-2316
조흥은행 임미순
435-06-085707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